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산업 동향*

윤 성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아르헨티나 일반 연왕

1.1. 아르헨티나 경제 일반 연왕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의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영토 대국(2,780,400km²)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27.7배에 달한다. 2012년 기준 인구는 4,108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9%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거주한다.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는데 2005~2010년 사이 연간 1.2%씩 감소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2010년 연 9.2%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1.9%로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였다. 2013년 성장률은 3.5%로 추정되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승 등 악조건으로 올해에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2년, 2013년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25.3%, 20.8%로 심각한 상황이며, 올해 9월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30.5%로 올해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CIA, the World Factbook; 연합뉴스 2014.10.17.). 아르헨티나의 산업별 GDP 기여비중은 2013년 기준 농업 9.3%, 산업 29.7%, 서비스업 61%이며, 2013년 10월 기준 산업별 고용 구조는 농업 5%, 산업 23%, 서비스업 72%으로 추정된다(CIA, the World Factbook; 2014년 11월 접속).

* (graceyoon@krei.re.kr 02-3299-4393).

표 1 아르헨티나 일반 현황

경제지표	2005	2010	2012
GDP (백만 현재 US\$)	183,196	370,263	477,028
GDP 성장률 (2005년 가격 기준, %)	9.2	9.2	1.9
1인당 GDP(현재 US\$)	4,740.1	9,170.8	11,610.2
1인당 GN(현재 US\$)	4,579.5	8,919.2	11,363.5
총고정자본형성(% of GDP)	21.5	22.0	21.8
환율(1 US\$ 당)	3.01	3.96	4.90
국제수지, 경상계정(백만 US\$)	5,274	1,360	22
소비자가격지수(CPI)(2000년=100)	162	249	301
농업생산지수(2004~2006년=100)	103	116	107
식품생산지수(2004~2006년=100)	103	116	106
실업률 (%)	11.5	7.7	7.2
산업부문 고용률(전체 고용 대비, %)	23.5	23.2	23.4
농업부문 고용률(전체 고용 대비, %)	1.1	1.3	0.6
사회 지표			
인구성장률(연평균 %)	2010~2015		0.9
도시인구 성장률(연평균 %)	2010~2015		1.0
농촌인구 성장률(연평균 %)	2010~2015		-1.2
도시인구 비중 (%)	2013		92.8
0~14세 인구 비중 (%)	2013		24.2
60세 이상 인구 비중, 여성/남성	2013		17.2/13.0
성비(100명의 여성 당 남성 수)	2013		95.8
기대수명, 여성/남성	2010~2015		79.8/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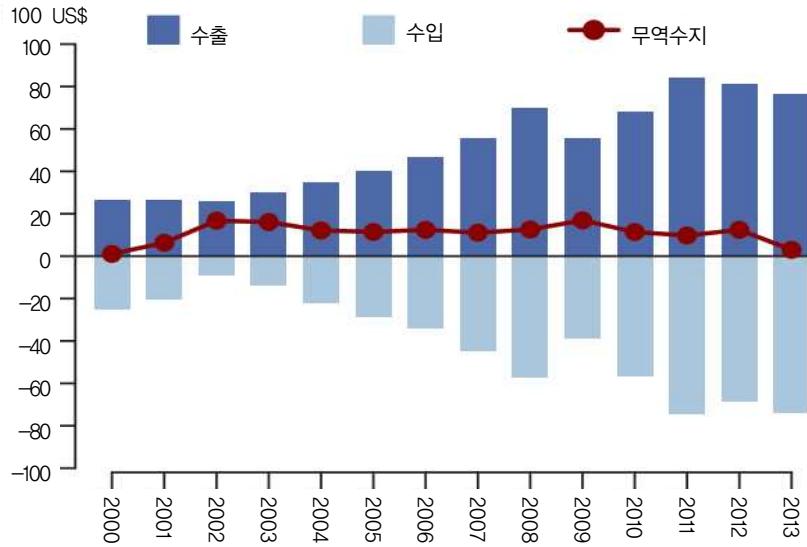


자료: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4, UN, 및 FAO(지도).

1.2. 아르헨티나 무역 일반 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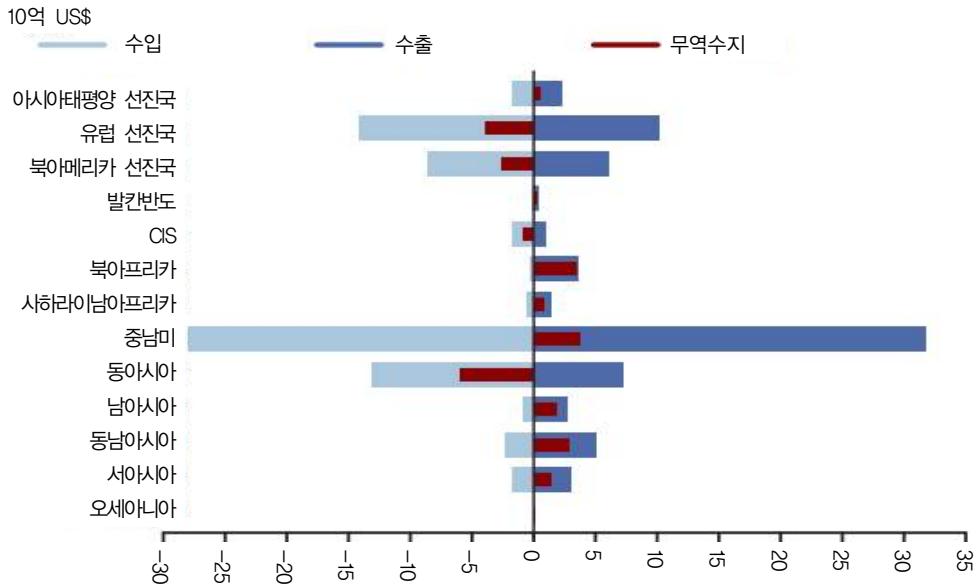
2013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상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766억 달러(US\$), 상품 수입액은 7.5% 증가한 737억 달러였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흑자(30 억 달러)를 보였다. 가장 큰 상품무역 수지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59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의 상품 무역국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 모두 다양한데 상위 26개 무역 상대국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15개국이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한편 2012년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3% 감소한 152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5.1% 증가한 187억 달러로 서비스무역 수지 적자액은 35억 달러였다(UN data, 2014년 11월 접속 기준).

그림 1 아르헨티나 총 상품 무역 현황(금액)



자료: UN data(<https://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ARGENTINA>), 2014년 11월 접속 기준.

그림 2 아르헨티나 상품 무역 수지



자료: UN data(<https://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ARGENTINA>), 2014년 11월 접속 기준.

아르헨티나의 수출 상위 10위 상품과 2011~2013년 사이 무역액은 <표 2>와 같다. 상위 10개 품목에 5개가 농산품이며, 그 중 '대두 오일케이크와 고체형태의 유박', '대두유와 그 분획물' 등 대두 관련 상품이 3개로 아르헨티나에서 대두가 주요 농산품 수출 품목이다.

표 2 아르헨티나 상위 수출 품목(2011~2013)

HS code	2007 HS 앞4자리	금액(백만 US\$)		
		2011	2012	2013
	전체 상품	84,051.2	80,927.1	76,633.9
2304	대두 오일케이크와 고체형태의 유박	9,906.7	10,548.9	10,660.6
1005	옥수수	4,519.2	4,841.1	5,848.0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5,197.1	4,319.8	4,089.3
8703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4,712.1	3,958.6	4,123.4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457.2	3,191.6	4,089.4
8704	화물자동차	3,480.8	3,836.4	4,116.8
2709	석유와 역청유	2,182.2	2,608.2	1,736.8
7108	금	2,315.1	2,259.8	1,846.6
1001	밀과 메슬린	2,508.8	2,951.9	725.4
9999	분류되지 않은 품목	1,816.5	2,024.1	2,119.9

자료: UN data(<https://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ARGENTINA>), 2014년 11월 접속 기준.

OECD가 각 나라 간 무역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절차를 개선하고, 무역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한 무역원활화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FI)를 토대로 아르헨티나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보의 접근성', '통관 자동화', '통관절차 간소화', '외부 관세당국 협력' 지표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국가와 중상위소득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고, '무역업계의 참여', '재심 절차', '수수료', '통관서류 간소화', '거버넌스와 공정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내부 관세당국 협력' 지표는 앞서 언급한 비교국가 그룹의 평균적인 수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향후 아르헨티나가 내부 관세당국 협력, 수수료, 통관 서류 간소화, 거버넌스와 공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무역량이 증대되고 소요되는 무역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톤으로 국내 다른 농산품 생산량보다 월등히 높는데¹⁾ 이는 미국(8,205만 4,800톤), 브라질(6,584만 8857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FAOSTAT 자료 참조).

표 3 아르헨티나 농지 구성 현황

단위: 1000ha

	2005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
국토면적	278,040	278,040	278,040	278,040	-
육지	273,669	273,669	273,669	273,669	-
농지	137,798	146,717	147,548	148,791	1.1
유기농지	2,682	4,144	3,796	3,585	4.2
경작지 및 영년생 작물	33,897	38,217	39,048	40,291	2.5
경작지	32,897	37,217	38,048	39,291	2.6
- 단년생 작물	25,486	29,817	30,648	32,091	3.3
- 단년생 목초	4,411	4,400	4,400	4,400	0.0
- 휴경지	3,000	3,000	3,000	2,800	-1.0
영년생 작물	1,000	1,000	1,000	1,000	0.0
영년채초지	103,900	108,500	108,500	108,500	0.6
산림	30,599	29,400	29,160	28,920	-0.8
기타	105,273	97,552	96,960	95,957	-1.3

주: 1. 육지는 농지, 산림, 기타를 합한 면적이며, 농지는 경작지 및 영년생 작물, 영년채초지를 합한 면적임.

2.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2년 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FAOSTAT(2014년 11월 접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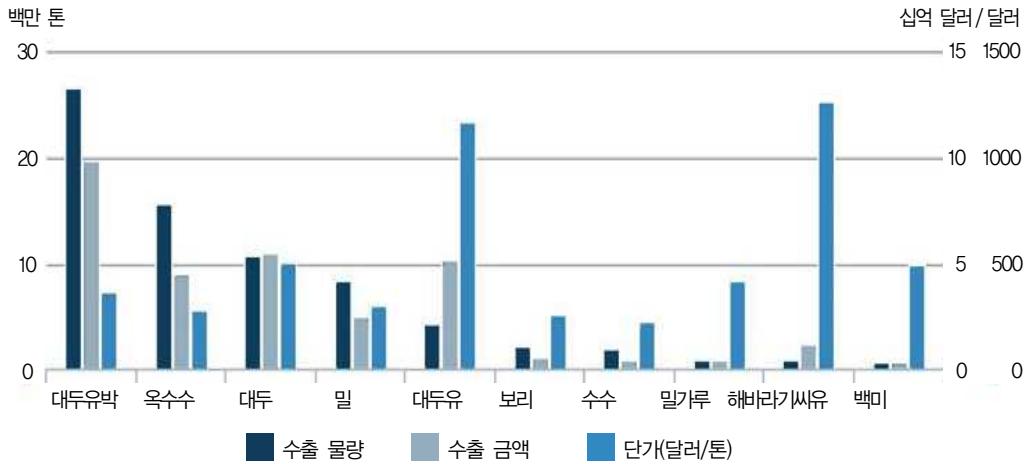
2.2. 주요 교역 농산품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농산품은 <그림 4>와 같다.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생산량이 독보적인 만큼 물량 기준 수출 품목 상위 10개 품목에 대두유박(1위), 대두(3위), 대두유(5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대두유박(soybeans cake) 세계 1위 수출국이다. 2012년 기준 수출된 대두유박량은 2,683만 2,024톤이며, 이는 99억 672만 달러에 달한다. 수출품목에서 식물유지가 높은 단가를 보이는데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1톤당 1,274달러였고, 대두유는 1,176달러였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 농산품은 물량 기준으로 바나나, 정제설탕, 돼지고기, 건조천연고무 등이다<그림 5 참조>. 아르헨티나

1) 2012년 기준 사탕수수 생산량(2300만 톤), 옥수수(2119만6637톤), 해바라기씨(334만520톤)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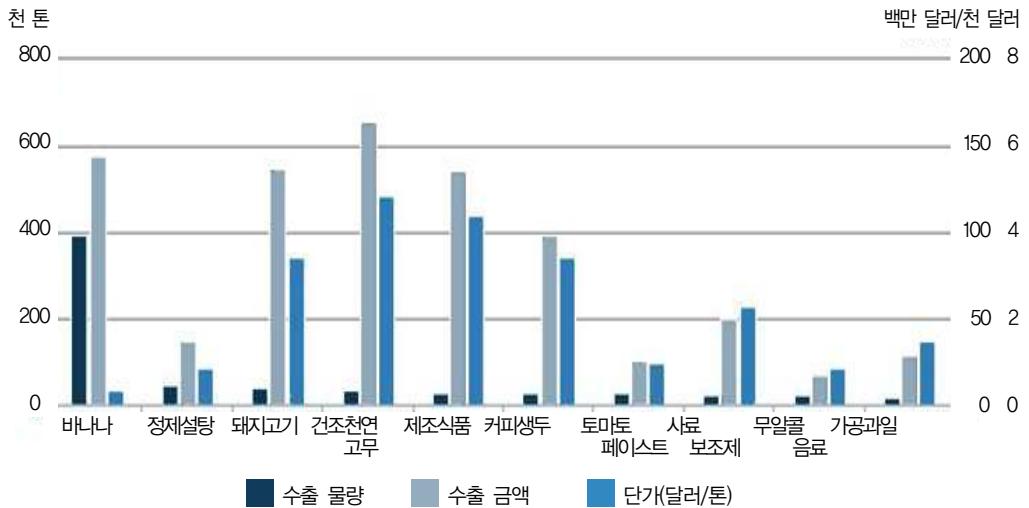
는 2011년에 39만 4,881톤의 바나나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금액으로 1억 4,369만 달러이다. 가장 높은 수입액을 보인 품목은 건조천연고무로 1억 6,484만 달러이다.

그림 4 2011년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 농산물(상위 10개)



자료: FAOSTAT(2014년 11월 접속 기준).

그림 5 2011년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 농산물(상위 10개)



자료: FAOSTAT(2014년 11월 접속 기준).

3.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산업 동향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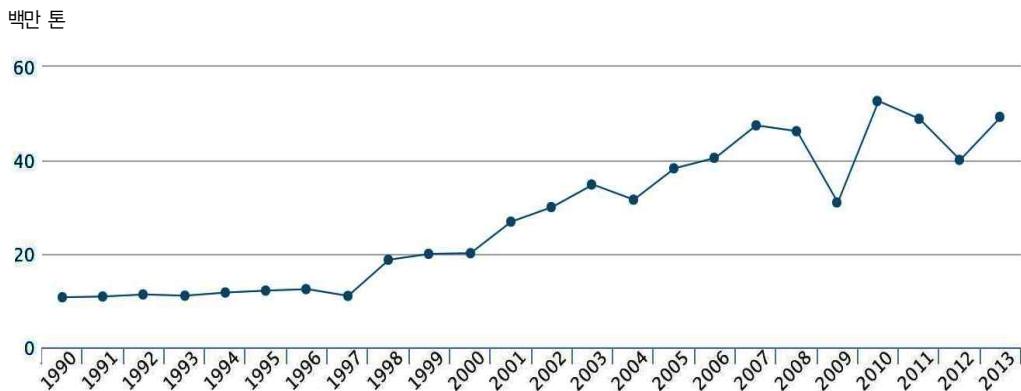
3.1. 생산³⁾

2014년 10월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생산에 관한 미국 농업부(USDA)의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과 환 헤지(currency hedging)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르헨티나의 2014/15년 대두 생산면적은 2,100만ha, 생산량은 5,700만 톤(metric ton)로 추정된다. 침체된 판매량으로 인해 2013/14 연말재고량은 1,260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4/15년 땅콩 생산면적은 34만5천ha로 추정되며, 동기간 해바라기씨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50만ha, 270만 톤으로 추정된다. 각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대두 생산

FAO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3년 대두 생산량은 4,930만 6,201톤으로 이는 전년대비 25.9% 증가한 수치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1997년 이후로 전반적인 상승세로 1990~2013년 사이 연평균 6.9%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2009년 대두 생산량이 3,099만 3,379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생산량이 5,267만 7,371톤으로 정점을 기록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 추이



자료: FAOSTAT(2014년 11월 접속 기준).

2) 본고에서 사용한 달러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유통연도란 올해 4월~다음해 3월까지를 의미함. 즉, 2012/13년의 경우 2012년 4월~2013년 3월을 의미함.

3)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2014/10/1)를 정리·요약함.

2014/15년 대두 생산면적은 2,100만ha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3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5,700만 톤으로 예측된다. 최근 들어 수년 만에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여 아르헨티나 농업인은 2014년 재배면적 결정에 있어 곤경에 처해있다. 그들은 어떠한 작물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또는 약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 옥수수가 재배된 면적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전망은 대두생산량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대두생산이 작은 역할을 하고, 환율과 정부 수출 정책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서, 농업인들은 그 자체로 대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가절하에서 그들 최고의 대비책으로서 생산하는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아르헨티나와 같은 주변지역에서 대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항구까지 소요되는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다른 시장으로의 근접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생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2014/15년 대두재배는 10월 시작으로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대기모드(waiting mode)에 있다. 지난 몇 년간 농업인들은 시장최고가격과 통화 등락을 이용하고자 대두를 오랫동안 보유해 왔는데 이는 사일로백(silo bag) 기술의 출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13/14년 대두판매에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상당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들은 단순히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투입재 구매가 필요할 때까지 최소한으로 판매하고 있어 2013/14년산 대두의 40~45%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종자판매와 비료판매도 뒤쳐져 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관련하여 임차료를 고정하기를 기다리기에 토지임차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토지임차료를 고정량(fixed amounts)이 아니라 대두생산비중에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차료는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면적의 60%가 임대된 것이다.

2013/14년 대두판매는 압착회사(crushers)와 수출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2013/14년 압착량(crush)은 4,000만 톤으로 추정되며 900만 톤이 수출되었다. 농업인들이 평가절하 대비책으로 대두를 보유하고 있어 판매는 더딘 편이다. 2013/14년 기말재고(ending stock)는 1,260만 톤으로 추정된다. 압착회사는 그들의 공장이 55~60%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수출업자들은 낮아지는 가격과 향후 환율변동에서 판매를 주저하는 농업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다. 2014/15년 대두 압착량은 4,2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세계 대두박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전망은 통대두 (whole soybean)의 수출이 증가하여 1,000만 톤이 될 것으로 본다.

표 4 아르헨티나 대두 관련 지표

단위: 1000 ha, 1000 MT

	2012/2013		2013/2014		2014/2015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재배면적	19,400	19,400	19,800	20,300	20,000	21,000
수확면적	19,400	19,400	19,800	20,100	20,000	21,000
초기재고	4,729	4,741	9,270	8,643	13,564	12,643
생산	49,300	49,300	54,000	55,000	55,000	57,000
MY 수입	2	2	2	0	2	0
총 공급	54,031	54,043	63,272	63,643	68,566	69,643
MY 수출	7,817	7,900	8,500	9,000	9,000	10,000
crush	35,004	35,500	39,120	40,000	40,350	42,000
국내 식품 소비	0	0	0	0	0	0
국내 사료 소비	1,940	2,000	2,088	2,000	2,152	2,000
총 국내 소비	36,944	37,500	41,208	42,000	42,502	44,000
기말재고	9,270	8,643	13,564	12,643	17,064	15,643
총 유통	54,031	54,043	63,272	63,643	68,566	69,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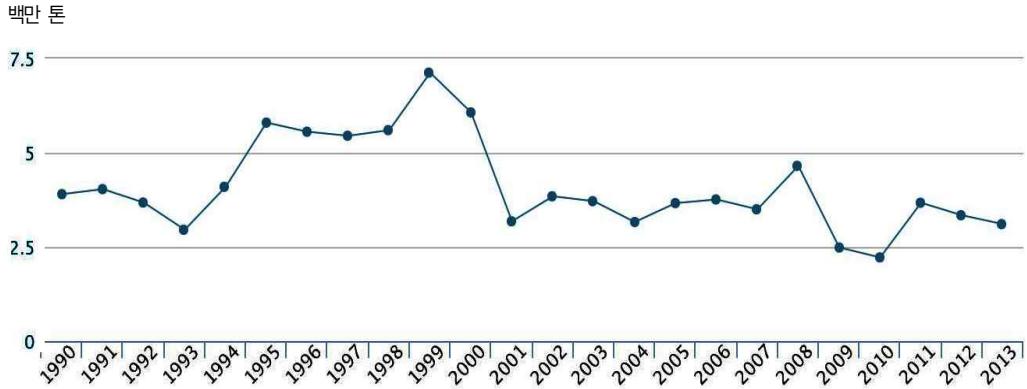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2014/10/1).

3.1.2. 해바라기씨 생산

아르헨티나의 2013년 해바라기씨 생산량은 310만4,420톤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그림 7>은 1990~2013년 아르헨티나의 해바라기씨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0년대 대폭 증가한 생산량은 2001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동기간 해바라기씨 연평균 생산 변화율은 -0.98%로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로 볼 수 있다.

2014/15년 해바라기씨 생산면적은 150만ha, 생산량은 270만 톤으로 전망된다. 낮은 수익과 차코 및 산타페 지역에서 해바라기 생산면적이 감소하여, 이 생산면적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남동부지역은 해바라기씨 주요 생산지역인데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작물생장이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부에노

그림 7 아르헨티나 해바라기씨 생산 추이



자료: FAOSTAT(2014년 11월 접속 기준).

스 아이레스 지역의 물 과잉은 농업인들이 대두 재배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여 대신 해바라기씨로 전환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이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대안이다. 9월 말경 2014/15년의 재배의 20%가 마무리되었다. 2014/15년 수확량은 원래 트렌드대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나, 2013/14년은 많은 생산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농업인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장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고올레산(high oleic) 해바라기 품종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까지 고올레산해바라기는 일반적인 품종보다 수확량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3/14년에는 고올레산해바라기 수확량이 20~30% 증가하여 일반품종 수확량과 거의 비슷할 전망이다.

해바라기씨 압착량은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230만 톤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바라기씨유 가격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해바라기씨 생산과 압착을 보조한다. 기름을 압착하는 회사(crushers)들은 전체 유지종자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해바라기씨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세의 일부를 받는다. 인구의 70% 이상이 지속적으로 해바라기씨유를 요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계분석가는 이 정책이 해바라기씨유 시장 가격을 1/3로 줄여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가게에서 1리터 해바라기씨유 가격이 1리터의 물 가격보다 저렴하다.

표 5 아르헨티나 해바라기씨 관련 지표

단위: 1000 ha, 1000 MT

	2012/2013		2013/2014		2014/2015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재배면적	1,623	1,623	1,300	1,315	1,500	1,500
수확면적	1,623	1,623	1,300	1,315	1,500	1,500
초기재고	369	369	1,020	1,020	773	723
생산	3,100	3,100	2,100	2,100	2,700	2,700
MY 수입	9	9	8	8	7	8
총 공급	3,478	3,478	3,128	3,128	3,480	3,431
MY 수출	84	84	75	75	80	70
crush	2,344	2,344	2,250	2,300	2,500	2,500
국내 식품 소비	0	0	0	0	0	0
국내 사료 소비	30	30	30	30	30	30
총 국내 소비	2,374	2,374	2,280	2,330	2,530	2,530
기말재고	1,020	1,020	773	723	870	831
총 유통	3,478	3,478	3,128	3,128	3,480	3,431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2014/10/1).

3.1.3. 땅콩 생산

유통연도 2014/15년 땅콩 생산면적은 34만 5,000ha로 추정된다. 업계는 땅콩생산 최대면적을 38만ha로 보고 있다. 생산자들은 작물재배에 있어 적절한 순환농법을 해야 한다. 업계는 땅콩생산면적의 90% 이상이 임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순환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적절한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농업인의 낮아진 신용이 재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2014/15년 땅콩재배면적은 28만ha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농업인들이 주로 10~12월에 땅콩 재배를 시작하기에 아직까지는 땅콩 재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있다. 2013/14년 생산량은 장기간 지속된 고습과 기후 불안정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15년 땅콩 수출량은 7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6 아르헨티나 땅콩 관련 지표

단위: 1000 ha, 1000 MT

	2012/2013		2013/2014		2014/2015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유통연도시작: 2013년 4월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USDA 공식	새로운 전망
재배면적	380	388	334	383	340	345
수확면적	380	380	334	378	340	340
초기재고	523	523	713	713	865	730
생산	1016	1016	982	997	1200	900
MY 수입	0	0	0	0	0	0
총 공급	1539	1539	1695	1710	2065	1630
MY 수출	585	585	580	700	700	700
crush	211	211	220	250	250	220
국내 식품 소비	20	20	20	20	22	20
국내 사료 소비	10	10	10	10	15	10
총 국내 소비	241	241	250	280	287	250
기말재고	713	713	865	730	1078	680
총 유통	1539	1539	1695	1710	2065	1630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2014/10/1).

3.2. 소비⁴⁾

3.2.1. 대두 및 대두제품 소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대두의 3/4 이상이 기름 및 유박 생산을 위해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가공되고 압착된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5,000만 톤의 대두를 압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기반시설과 함께 투자, 낮은 세금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압착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판매보다 보유를 선호하여 이러한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유통연도 2014/15년에 4,200만 톤의 대두가 압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두유와 대두박의 대부분은 수출되어 국내 소비량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생산량의 2/3가 수출되고 나머지가 10% 바이오디젤혼합 목표를 맞추기 위해 국내에서 소비된다(비록 목표가 현재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 식품용 대두유 소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4)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2014/3/31)을 정라·요약함.

대두 압착량은 유통연도 2013/14년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약간 증가하였다. 2012/13년에도 농업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3,5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4월~2014년 1월 사이 3,140만 톤 이상이 압착되어 남은 유통연도 2개월 동안 410만 톤이 추가적으로 압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2.2.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씨 제품 소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해바라기씨의 거의 전부는 기름과 유박을 얻기 위해 압착되고 매우 일부만이 제과용으로 수출된다. 해바라기씨유 국내소비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 보조되어 연간 70만 톤의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바라기씨박(sunflowerseed meal)은 낙농과 양돈 부문에서 동물사료로 이용되는데 이 양은 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연도 2014/15년에 압착되는 해바라기씨의 양은 250만 톤으로 추정된다. 올해 유통연도 2013/14년에는 230만 톤의 해바라기씨가 압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2/13년의 경우 234만 톤이 압착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같은 유통연도 첫 11개월 동안 215만 톤의 해바라기씨가 압착되었다.

3.2.3. 땅콩 및 땅콩 제품 소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땅콩은 EU 등 외부 제과용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땅콩 소비는 낮다. 땅콩유의 경우 식품등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급의 땅콩이 압착된다. 수출등급에 부합하는 땅콩은 모두 수출되기 때문에 기름을 얻기 위한 가공은 땅콩산업에서 잔여 땅콩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생산된 땅콩유 또한 대부분 수출되고, 땅콩박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어 국내 땅콩유와 땅콩박 소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연도 2014/15년에 압착될 땅콩은 22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3/14년에는 25만 톤으로 예상되며, 2012/13년의 경우 21만1천 톤으로 추정된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2014년 1월 사이 14만936톤의 땅콩이 압착되었다.

3.3. 무역⁵⁾

3.3.1. 대두 및 대두제품

아르헨티나는 자국에서 대두의 약 3/4를 분쇄한다. 분쇄하지 않은 대두의 전량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 MY 2012/13년에 통 대두(whole soybeans)의 80%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610만 톤(metric ton)에 달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주요 대두유

5)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2014/3/31)을 정리·요약함.

(soybean oil)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MY 2012/2013의 첫 10개월 동안 대두유의 1/4가량이 인도로 수출되었고,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페루 순이었다. 대두박(soybean meal)의 대부분은 EU로 수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란, 알제리,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아르헨티나의 소규모 대두박 시장이다.

유통연도 2014/15년에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1,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대두 압착량 또한 증가하여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 또한 각각 535만 톤, 3,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유통연도 2013/14년 대두 수출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50만 톤 증가한 900만 톤이다. 대두유 또한 수출이 500만 톤으로 늘어났고, 대두박 수출 또한 3,000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유통연도 2012/13년 대두 수출량은 790만 톤으로 추정된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대두는 2013년 4월~2014년 1월 사이 777만 7,365톤(metric ton)이 수출되었다.

3.3.2.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씨 제품

EU, UAE, 시리아, 멕시코, 브라질 및 여러 기타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과용 해바라기씨(sunflowerseed) 수출량은 8만 톤이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40%)와 러시아(15%) 다음으로 세계 3위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 oil)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의 약 10%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 뉴질랜드, 네덜란드, 헝가리가 아르헨티나를 제쳐 아르헨티나의 해바라기씨유 시장 비중은 절반인 5%로 감소하였다. 유통연도 2012/13년에 아르헨티나는 압착을 적게 하여 시장 경쟁력이 낮았다. 업계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유통연도 2013/14년에 가공하여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관계와 EU의 러시아산 해바라기씨 부문 제재 여부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향후 시장 위치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연도 2014/15년에 해바라기씨 수출은 7만 5,000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해바라기씨유와 해바라기씨박 수출은 각각 60만 톤, 40만 톤으로 예상된다.

유통연도 2013/2014년 해바라기씨와 해바라기씨박 수출은 각각 7만5천톤, 40만 톤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해바라기씨유 수출은 재고와 생산량 증가로 분쇄량이 많아져 80만 톤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연도 2012/13년 해바라기씨유 주요 시장은 EU, 호주, 이집트,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이다. 수출량은 2만 5,000 톤 감소한 35만 톤이었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유통연도 2012/13년 첫 11개월 동안 33만8천 톤의 해바라기씨유가 수출되었다.

3.3.3. 땅콩

아르헨티나는 고품질의 제과용 땅콩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2013년 땅콩 생산량이 세계 7위에 머물렀지만 인도와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 땅콩 수출국이다. 유통연도 2012/13년 첫 10개월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주요 땅콩수출시장은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브라질, 독일,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다.

국제시장의 수요로 적어도 45~50만 톤의 땅콩이 매년 수출된다. 유통연도 2014/15년 땅콩수출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70만 톤으로 예상된다. 유통연도 2013/14년 수출 또한 전년도 재고로 인해 7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연도 2012/13의 경우 수출은 62만 톤에서 58만 5,000 톤으로 낮아졌다.

3.4. 정책⁶⁾

3.4.1. 생명공학(Biotechnology)

최근 다수의 새로운 대두 품종이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이슈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 종자법이 새로운 품종의 상업적 생산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아르헨티나 법은 생산자들이 그들 농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을 위해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그 종자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종자 첫 구입 시에만 사용료(royalty)를 지불하고 추후연도부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Round-up Ready 2의 새로운 품종이 아르헨티나에서 승인되었고, 종자법의 개정 없이, 생산자와 종자회사는 생산자가 새로운 품종을 구입할 수 있고, 종자회사에 사용료(royalty)를 지불하는 협정 초안을 만들었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 구입비는 기존의 Round-up Ready의 거의 두 배로 일부 생산자들은 올해 시험용으로 재배하여 수확량 등 그 차이를 직접 보고자 한다. 업계는 INTACTA와 다른 Round-up Ready 2 품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년간 IPR을 보호하는 새로운 종자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13년 10월 지도부의 변화를 가져온 중간 선거 후 논의를 위해 농업부로 다시 되돌아왔다. 계류된 개정법 초안은 2015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6)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2014/3/31)을 정리·요약함.

3.4.2. 수출 승인과 세금

기존의 국립농업무역관리기관(ex-National Agricultural Trade Control Agency, ex-ONCCA)은 아르헨티나의 농업 수출을 규제하여 수출업자들이 수출등록(ROEs)을 하도록 한다. 유지종자에 대한 ROEs 허가는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의 수출세금지불시기에 따라 45일 또는 180일의 두 가지 다른 적재(embarkation) 기간이 있다. 만약 ROE신청 5일 안에 세금을 납부한다면, 수출업자는 180일 동안의 적재기간을 보장받고, 수출 시기에 세금을 지불한다면 45일의 적재기간을 보장받는다. 유지종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다.

표 7 유지종자 품목별 수출세

품목	세금
대두	35%
대두유	32%
유박	32%
해바라기씨	32%
해바라기씨유	30%
해바라기씨밀	30%
땅콩	23.5%
땅콩유	5%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2014/3/31).

농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세는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Government of Argentina, GOA)의 소득원이 되어왔다. 사실, 대두(soybean complex) 수출세는 GOA의 가장 큰 미국달러 수입원으로 2014년 3월 300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주된 기여자이다. 페소(peso)의 평가절하로 인한 고인플레이션과 통화규제는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더했으며 대두 수출로 인한 기대되는 달러의 유입은 국제준비금을 보충하고 정책 지원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농업부, 경제부, 세계무역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 공식환율데이터에 따르면 대두와 대두제품수출로부터 발생한 2011~2013년 평균 연간수입은 66억 미국달러였다. 이것은 평균 정부 총수입인 1,500억 달러의 4%에 해당한다.

2014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전에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 간 차이를 약화시킨 외화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르헨티나조세당국(AFIP)에 따르면 이제는

한 달에 7,200페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은 소득의 최대 20%까지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구입액은 인당 2,000미국달러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 후 3월 중순에 저축 목적으로 구입한 규모액이 약 3억 2,000만 미국달러에 달했다. 급속한 페소 평가절하와 함께 이 조치는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 격차를 완화하였다. 2014년 3월 28일 기준으로 1달러당 공식 환율은 7.97페소, 비공식환율은 10.75페소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공식 환율은 5.11페소, 비공식환율은 8.75페소였다.

비공식적 인플레이션 범위는 25~30%이며, 페소의 가치는 2013년 1월~2014년 2월 사이 1년 동안 60% 절하되었다. 30% 이상의 수출세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자.

“dolar soja”는 아르헨티나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로 공식 환율에서 수출세를 제외한 즉, 그들의 상품에 대해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불된 비율이다. 대두에서, 생산자는 평균적으로 1달러 당 5.2페소를 받는데 이것은 비공식환율의 1/2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생산자들이 그들의 대두를 저축의 형태로 보유하고 빚을 갚기 위해 최소한의 양을 판매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오늘의 페소가 1개월이나 6개월 후의 페소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록 올해 더욱 심해질 것이지만, 농장에 농산품을 저장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적어도 지난 5년간 점점 더 많은 생산자들이 큰 플라스틱 사일로백 또는 지역조합엘리베이터 사일로에 곡물을 저장하고 있다.

사일로백으로 인해 농장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없다. 생산자들이 이러한 이동가능한 백을 채우고 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대두와 기타 곡물을 저축의 확실한 형태로 볼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Brooke Markley. 2014.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Annual(2014.3.31.).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Caleb O'Kray. 2014. Argentina Oilseeds and Products Update(2014.10.1.).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nited Nations. 2014.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4 edition. Series V, No. 38. UN.

UN data. 2014. Trade Profile. (<https://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ARGENTINA>)

OECD. 2013.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Argentina. (<http://www.oecd.org/tad/facilitation/indicators.htm>)

연합뉴스. 2014.10.27. “아르헨티나 인플레이 위기 가중…23년 만에 최고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190626>)

참고사이트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FAOSTAT (<http://faostat3.fao.org>)

UN data (<http://data.un.org>)